

# 국제화시대와 日本の 養鷄



佐佐木敏夫  
(경제국국제기획과  
농림수산성)

우리의 경제도 이제는 연간 수출 150억\$의 무역 대국이 되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세계 무역 10대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작년년부터 단계별로 수입을 개방하고 있다.

우리 양계산업도 좋은 실든간에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여야 하며 최근 신문보도는 경제기획원 발표를 인용하여 국제경쟁력이 없는 농축산물의 수입을 개방하려 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우리와 형편이 비슷한 이웃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본다.

이 원고는 지난 3월 27~29일까지 일본동경 유통센터에서 개최된 제10회 전일본 양계산업전 강연회에서 강연한 내용을 의지에서 발췌 하였다.

## (1) 강력한 貿易不均衡 是正

일본의 농산물의 殘存輸入 제한품목 즉 GATT.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에 일본은 가입되어 있는데, 이 협정은 자유무역주의를 원칙으로 삼고있어 인위적인 수입규제는 철폐하도록 되어있다. 부득이 수입규제를 할 경우는 가트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것이 가트의 義務免責品目이며 통칭 웨-바 品目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웨-바를 취득하지 않고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이 22품목이다. 이 품목수는 歐美에 비해 실질적으로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主要品目の 貿易額도 歐美에 비해 소규모이다. EC는 주요 품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있으나, 國境保護水準과 같은 현저하게 높은 수입과징금 및 수출보조제도를 실시하여 자유화하고 있으면서도 보호수준은 대단히 높으며, 또한 그 수준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종종 농산물의 국제무역을 왜곡할 要因이 많다. 또 EC는 수입과징금 외에 加盟各國은 輸入課徵金制度를 補充하는 형식으로, 독자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하여 殘存輸入制限을 시킬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EC가맹국은 대외적으로는 한 나라로서 교섭을 맡는 일도 있어 EC가맹국 전체의 잔존수입품목수는 일본의 22개를 훨씬 상회하게 된다.

또 미국에 있어서는 국내농업계획 추진에 불가결하므로 주요품목의 농업계획을 규정할 조항(條項)에 대한 웨-바를 취득하고 있다. 이것에 따라 수입제한품목은 매년 변동하나, 1979년 13품목, 이외 가트에 위반된 수입제한을 하고 있는 품목이 1품목이다.

또 대통령포고로 실질적인 수입제한을 하

도 양계산품은 세계 여러나라 중에서도 값싼 部類에 들어 있다.

특히 계란은 内外가격차가 작게 나타남과 같이 農業중에서도 두드러진 존재로 되어 있다.

養鷄產品의 국경보호는 이미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가 주된 보호수단이며 다른 품목에 비하여 높은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일본에 種鷄를 팔고, 사료곡물 大豆를 대량으로 팔고, 또 관리기재등도 팔며 더우기는 그것에 의해 생산되는 품목과 같은 것 까지 팔기를 강력히 하는데 이는 미국의 특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다.

美國이라는 나라는 主義, 主張이 州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수출의 관심 정도도 다른 잡다한 州의 모임이며 더우기 州自本의 생산물과 수출농산물의 구성이 반드시 같은 한 모양으로 되어있지 않다. 그것은 사료곡물과 대두는 中西部諸州의 주력한 수출농산물인 것에 반해, 부로일러와 鷄肉 따위는 南部諸州의 생산물로, 中西部가 一體가 되어 수출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부로일러 수출에 관심을 가진 南部諸州의 수출업자들은 수출업자대로 생산자의 要請이 中西部와 상관없이 이지역의 要望으로서 對日 수출 관심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미국의 對日 수출 관심품목은 各州의 정치적인 모자이크의 所産으로 간주된다.

또, 금후 東京라운드처럼 커다란 교섭이 얼마간 없다는 생각에서, 이 기회에 수출관심 품목을 전부 내놓겠다는 속셈이 배경에 있는 지도 부정할 수 없다.

## (2) 擴大가 豫想되는 養鷄產品 貿易

한편 세계의 양계산품의 무역을 살펴보면 EC域內 무역이 계란 食鳥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西歐 및 일본에의 수출이 약간 존재하지만 產油國의 수입확대에 따라

새로운 무역의 흐름을 구성하고 있다.

미국의 가금육수출은 1960년대 對歐 방향이 침체되어, 수출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 산유국쪽의 급격한 수출확대에 따라 활기를 띠고 있다.

일본의 계육수입은 1979년 5.8만톤 (8,000)으로 국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漸增하는 경향이다.

主要輸入國인 미국은 풍부하고 값싼 사료와 대량규격생산으로 우세하여 内外價格差의 格差여하는 앞으로도 수출확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동력이 풍부하고 값이 싼 近隣諸國에 있어서도 가금육의 생산기술의 평준화와 품질규격, 위생조건의 개선에 따라 대일수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증진해 올것으로 예상된다.

歐州의 對日 수출은 운임등에 있어 불리하기 때문에 수출보조금의 支出이 없으면 항상 시장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3) 競爭力 強化가 必要

일본은 美國産 飼料穀物, 大豆등을 主体로 비교적 값이싼 양계 原材料를 수입하고 있는 결과, 사료곡물등의 시세가 비교적 싼데도 불구하고 円高基調 때문에 양계생산비의 過半을 차지하는 배합사료가 가금육, 계육에 비하여 비싸다. 円高는 또 가금육, 液卵의 円建 \$價格을 높여주기 때문에 國內産은 수입품과의 가격경쟁을 할 수 없지만 대량수입은 국내 시세를 하락시키므로 수입에 충분히 對應할 수 있도록 국내생산의 경쟁력을 培養하는 것이 절실하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계란, 가금육에 있어서도 규모확대,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는 素地를 갖고있다.

## 三. 日本 양계의 展望

일본의 양계는 계란부문에서 供給力이 충

고있는 食肉이 있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最强이라고 불리워지는 나라는 너무나도 많으며,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웨-바도 높다고 말한다.

## (2) 세계 최대급의 농림수산물 수입

일본은 농림수산물의 수요증대에 따라 수입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그 정도는 세계 최대이다.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고도경제성장기 및 식량수급긴박시를 통하여 급속히 확대함과 동시에 무역수지 개선에 현저하게 기여해 왔다.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과거 10년간에 4 배, 5 년간에 2.4배나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신장세를 나타냈다.

1979년의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214억달러, 완전한 농산물 134억달러 수산물 33억달러이다.

총수입액으로 이 만큼의 농림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도 별로없다. 세계의 농림수산물무역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지닌 정도이다. 이것을 부분별로 보면, 농산물수입은 서독, 미국, 영국에 이어 높은 수준이며, 임산물 및 수산물은 第1位이다.

양계산업과 관련이 깊은 것은 농산물 및 수산물이다.

개별품목별로 보면, 木材, 綿, 大豆, 옥수수, 새우, 小麥, 커피, 羊毛, 그린솔검이 上位 10品이다. 양계산업과 관계 깊은 배합사료원료가 랭크되어 있다.

주요 수입상대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며 거리적으로 먼 歐州로 부터는 상대적으로 적다.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수량이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농림수산물 수입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양계 관련 원료의 최대 수입선으로 되어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48%가 농림수산물을 차

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측에서 살펴보면 1977년의 농산물수출액 236.7억달러중 對日 수출은 38.6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6.5%를 차지하여 제 1 위이다.

주요품목은 大豆 9억달러, 옥수수 4억달러, 小麥 4억달러, 그린솔검 2억달러이며, 日美농산물교섭에 있어서 핵심사항으로 되었던 牛肉, 오렌지등의 감귤류는 수출액이 극소액으로 지역적 수출관심품목이라고 말한다. 또, 양계산물의 대일 수출도 주요품목에 비하면 소액이다.

미국에 비하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비중은 대단치 않다. 양계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호주에서 액란 수입이 있을 정도이다.

미국과 일본의 양계 관계를 보면, 생산자재인 種鷄, 管理機械, 管理方式, 配合飼料原料,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분야에 걸쳐 과거에서 부터 교류가 있으며, 또 일본양계가 미국과의 무역관계 발전을 통하여 확대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이다.

## 二. 養鷄產品의 國際貿易問題

### (1) 對日 輸出 擴大를 목표로 한 미국.

일본 농업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두 나라 간에 東京라운드에서의 농산물교섭은 일단 결말을 보고있는데 양계관계에 대하여는 牛肉, 오렌지등을 밖으로 내놓지 않고 안으로 숨겨 그다지 世論의 注目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잠재적인 巨大性에 주목하고 일부품목의 관세인하를 요구해 왔다. 양계산업은 그 규모, 기술, 경영력, 제품의 특이성등으로 보아, 對外 경쟁력이 다른 농업분야에 비하여 높은 것은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미국 농무성이 매월 조사하는 세계 주요도시의 식료품 가격을 보더라도

분하여 이미 국민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생산능력을 갖고있다. 이 경향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는 것으로 이 개선책으로써 생산조정, 調整保管등의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대개 양제는 토지조건이 협소한 일본의 농업발전을 阻害하는 制約條件에 그다지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이며 근대적 생산체제 아래서 대량생산이 실시되고 있다.

생산기술도 미국등에서 확립된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었기 때 문에 생산의 확대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대단히 빨랐다 이 때문에 국민의 소비 동향에 合致되어 생산이 이루어져 왔지만, 계란의 경우 거의 충분한 소비수준에 달하여, 생산조정이나 소비확대책이 한층더 강화되어야 需給上的만 성과성이 定着하는 새로운 단계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양제는 대량의 사료곡물, 대두, 魚粉수입을 前提한 생산기술, 경영, 산업구조로 面에서 새로운 活路를 찾아 내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당면해 있다.

계란산업은 安定低成長期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下에서도 산업의 효율화, 구조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생산자의 소득 확보가 진지하게 생각되어 지지 않으면 안된다. 또 생산기술면에 있어서는 대량의 사료곡물, 대두, 어분등의 배합사료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기술을 그 위에 생산효율이 높은 것으로 개선해 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일본의 계란산업은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他産業과 類似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그 생산은 一定 가격으로 保證됨도 없이 需給實勢가 左右하는 시장에서 販賣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산업이다. 또 국민의 食料 안정공급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양제는 중요한 동물단백과 유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산업의 성격은 식료공급이라는 사명을 빼면 다른 有力산업과 똑같으며,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原料를 이용하여, 質높은 노동력과 高度의 加工기계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 있고 活力이 풍부한 산업으로서의 地位를 保持해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생산자가 적절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경영체를 발전시켜 생산면에서는 생산효율이 높은 기술을 발전, 보급시켜 가는 일이 절실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양계산업은 오래전부터 새 기술을 도입하여 創意연구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하여 最新技術의 導入 및 開發을 꾀하고 경영 합리화 규모확대를 진척시켜온 실적이 있다. 그러나 계란에 있어서는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새로운 視點에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일본의 양제는 부로일러등 이른바 食鳥面에서 새로운 분야가 생길 것이다.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란수요는 이미 일정수준에 이르러 금후의 수요증가는 인구증가를 내지는 保合정도 일것으로 여겨지는데 반해 食鳥部門은 국민의 식육수요가 금후에도 계속 강세 일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식육간의 相對가격 관계에서 비교적 안정감이 있으며 嗜好性에서도 풍부한 食鳥는 다른 식육 및 수산물의 代贖需要로서 안정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료곡물 대두 따위의 사료자원을 효율 좋은 식육으로 전환하기에는 역시 食鳥가 가장 합리적이며 省資源型이다.

이러한 것부터, 일찌기 계란의 생산합리화에 기울었던 노력을 식조분야에도 기울이며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品種改良을 시작하므로써 생산기술의 개선, 유통체제의 합리화 등을 통하여 발전이 도모되지 않으면 안된다